

채비

이효주

S#1. 현관/밤

비 내리는 밤, 서영(17/여)이 들어오며 현관 센서등이 켜진다. 문 열 때 종소리 딸랑인다. 서영의 손에는 우편물이 잔뜩 들려 있다.

서영: 다녀왔습니다

깜깜한 집, 닫힌 안방 문틈 사이로 열린 노란빛이 새어 나온다. 서영, 문을 여니 옥순(73/여)이 방문을 등지고 앉아 TV를 보고 있다.

옥순: 왔나

서영: 밖에 불 좀 켜놓으라니까. 무섭단 말이야

옥순: 무습기는

서영, 가방도 외투도 대충 방문 근처 바닥에 던져둔다. 옥순의 얼굴 바라보는 쪽으로(TV 등진 채) 눕는다. 새우잠 모습으로, 인형 베고 누웠다.

옥순: 옷 단디 안 걸어놓재. 저 또 구겨지면 옷 다 상할라꼬.

서영: 나 진짜 일어날 힘이 없음... 오늘 하루종일 학원 갔다 왔단 말이야.

옥순, 서영이 베고 누운 인형 뺏는다.

서영: 아야!

옥순: 으이그~ 공부 그거 잘해봤자 추잡게 살면 어데 쓰나. 먼저 인간이 돼라 인간이.

비 내리는 창문 비추고, 서영이 앓으며 일어나는 소리 들린다.

서영: 나 그럼 내일 파전해줘. 오징어 잔뜩 넣어서.

옥순: 오야~

스탠드 꺼진다.

S#2. 주방/아침

여전히 비가 내리는 아침. 거실에 놓여 있는 어린 서영과 옥순의 사진 비춘다. 배경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. 주방에서 서영은 부침 가루 담긴 믹싱볼에 물을 붓고, 옥순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.

서영: 좀 더??

옥순: 뭐 떡 만들 일 있냐? 쪽 넣어 쪽.

서영: 됐으면 말해!!!

옥순: 오케이~ 스둑.

옥순이 전 굵고 있고, 서영은 수저 챙겨서 거실 상으로 들고 가는데, 햇살 들어온다. 서영, 창문 연다.

서영: 어? 비 그쳤다...

옆으로 다가온 옥순.

옥순: 해가 짙은 것이, 봄 다 됐는가봐. 다 먹고 빨래나 하자잉. 겨울 다 가고 할라문 촉박혀.

S#3. 다용도실/오전

햇빛이 짙은 오전. 서영이 옷을 잔뜩 안고 다용도실로 들어간다. 빨랫감을 분류하며 주머니 뒤적거리다 할머니 옷에서 현금 발견하고 눈치 보며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.

서영: 할머니! 외투는 세탁소 맡길 거지?

옥순, 말이 없다. 더 크게 불러보는 서영.

서영: 할머니! 할머니!!

옥순은 거실 창에 붙은 뽁뽁이를 매만지고 있다.

옥순: ... 햇빛 들 때 이불부터 빨지 뭐.

서영, 이불 세탁기에 넣어보지만 딱 찬다.

서영: 어후... 옥순 씨!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?

어느새 다용도실 문에 서 있던 옥순이 한마디 한다.

옥순: 거 손빨래 해야 쓰겠구만. 이불 커가꼬 세탁기랑 같이 돌아가뿐다잉. 그러문 지대로 안 씻겨.

그때 끓고 있던 주전자에서 호루라기 소리 나며 김 빠진다.

S#4. 빌라 계단, 낮

옥순은 끓는 물을, 서영은 고무대야에 이불을 넣어 한아름 들고 계단을 오른다.

서영: 우리도 큰 세탁기 좀 사자. 요즘은 건조까지 한번에 된대.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 (계단 오르며 헉헉댄다)

옥순: 야 우리 집에 그거 두면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.

S#5. 빌라 옥상, 낮

빌라 옥상,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모를 화단이 놓여 있고, 빨랫줄이 걸려 있다.

서영: 아니 옥순 씨, 인터넷에서 솜이불은 물로 빨면 안 된대

옥순: 이거 솜 아니여~ 구스여~

서영과 옥순, 이불 빨랫줄에 걸고 먼지 털어 대야에 넣는다.

옥순: 뜨거우니까 떨어져있어

서영, 한 걸음 물러선다. 대야로 김이 펄펄 나는 물이 쏟아진다.

옥순: 짝끔 식히고 하자잉

S#6. 빌라 옥상, 낮

서영은 물 온도를 확인하려 물을 휘휘 젓고 있고, 옥순은 옥상 화단을 구경하고 있다.

서영: 할머니 뭐 봐?

옥순: 김옥순.

서영: (가볍게 한숨 쉬며) 옥순 씨~ 뭐 보고 있어~

옥순: 요것 봐라, 새싹이 텃어.

서영: 그거 뭔데?

옥순: 몰려~ 잡초겠지. (손으로 살살 건들며) 이놈도 겨울 넘겼네.

서영: 옥순 씨 이리 와, 물 좀 식었어.

S#7. 빌라 옥상, 낮

옥순이 허리 숙여 대야에 세제를 한껏 푼다. 서영이 쭈그려 앉아 손으로 휘휘 젓는다.

서영: 어우 그만그만. 맨날 세제 많이 푸네.

옥순: 거품 나는 게 이뻐게 그러지.

S#8. 빌라 옥상, 낮

서영이 대야에 들어가 이불을 발로 질근질근 밟고 있고, 옥순은 주전자로 물을 조금씩 더하고 있다.

옥순: 좀 따시나?

서영: 아 발 시려 죽겠어.

옥순, 거품을 살짝 떠 투덜거리는 서영에게 후후 날린다. 아이처럼 웃는 옥순.
서영 그 모습에 피식하더니 따라 해보는데, 잘 안 된다.

옥순: 이거 고급기술이여~ 넌 배울라든 아직 멀었다잉

발끈하는 서영, 계속 해보지만 옥순에게 비눗물 뿌리는 꼴이다. 옥순도 서영에게 물 튀기며 장난치고.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둘.

S#9. 빌라 옥상, 낮

옥순, 대야 들어 물 버린다. 서영은 지친 듯 바닥에 앉아 있다. 빈 대야에 이불 넣고 발로 밟으며 물기 빼는 옥순.

옥순: 원래 빨래는 말리는 게 제일 중요혀. 제대로 안 말리면 썩은 내 나부러.

어느새 서영은 옆으로 엎드린 듯 누워 있다. 발로 서영 쿡쿡 찌르는 옥순.

옥순: 한 번 쪽 짜면 끝잉께 어여 일어나.

서영과 옥순, 회오리 모양으로 비틀어 짰다. 물 먹은 이불 무겁고 커서 둘 다 비틀거린다.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.

서영: 할머니! 나 힘 완전 췌지?

물기를 짜다가 이불을 펼쳐 팡팡 튄다. 서영 시점에서,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불이 옥순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한다. 미소 짓고 있는 옥순이 스치듯 보이고. 세 번쯤 털었을 때, 옥순이 있던 곳에 비눗방울이 수만 방울 일고 옥순이 사라진다. 이불은 힘없이 떨어진다.

빈 옥상에 서영 멍하니 홀로 서 있다.

서영,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본다.

먹다 남은 파전.

화단에 나 있는 새싹에 비눗방울 닿아 있다 터지는 모습.

끝.

